

Rotary Social Enterprise

로 타 리 사 회 적 기 업 01



소리로 전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스타키그룹은 국내 보청기 시장점유율 1위와 고객만족도 1위로 업계 리더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가 더욱 특별한 것은 '봉사와 일' 균형 잡힌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치매의 발병률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난청입니다. 중도 난청의 경우 치매 속도를 2~3배를, 고도 난청은 무려 5배나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급이나 청각재활 및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후에 있을 치매노인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비용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투자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후원회 회장이기도 한 심상돈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발달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많은 역할을 했다. 뇌전증 지원법에 관한 부분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2017년 4월 14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난청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로타리 사회적 기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고,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CEO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더욱 매력적입니다. 직원들도 김장 봉사, 소리 사랑 캠페인 등 함께 한 부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사회적 기업으로 함께 봉사하고자 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위트 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은 문제지만, 로타리가 온난화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 아닐까요?”

스타키그룹의 심상돈 대표와 더불어 임직원들의 따뜻한 행보는 로타리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스타키그룹 대표 심상돈(한양RC)

인류의 건강과 행복,
더 풍요로운 삶,
사람과 사람을
소리로 하나되게



소리로 사랑을
전하는 기업



소리나눔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제 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꿈을 실현

1996년 창립 이래 오로지 청각 기술만을 연구해 온 스타키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하는 모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스타키그룹의 7개 자회사는 서로 돕고 협력하여 미래의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며, 국내 최초로 보청기 임상연구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인에게 꼭 맞는 보청기 개발을 위해 고객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청각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난청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소리사랑 봉사단

스타키그룹은 1998년 미국 본사의 스타키청각재단 (Starkey Hearing Foundation)과 연계하여 스타키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소리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청력검사, 보청기 무상 지원 등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힘을 모아 함께 하기 위함이다.

- 지역사회 후원
- 사회기부 활동
- 문화 예술 지원
- 글로벌 이웃에게 보청기 기부
- 산학협력 체결 · 교육지원
- 장애인 단체 봉사활동

세계 최초 인공지능 보청기 출시

스타키그룹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스타키 리비오 AI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타키 리비오 AI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리비오 AI 사용자는 앱을 사용하면서 건의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을 앱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난청 사용자들을 위해 개발된 이 기술은 센서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보내주기도 한다. 📞



Rotary Social Enterprise

로 타 리 사 회 적 기 업 02

공간에서 전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체리쉬는 가구 등 사람이 일상 공간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활 방식과 생각, 그리고 삶까지 그려내는 일이기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구와 공간의 상호작용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체리쉬 유준식 회장은 직원에 대한 관심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저를 비롯해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되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원의 복지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준식 회장은 “과거에는 승자 독식, 경영자 독식의 문화였다면, 이제는 직원 및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리쉬 직원의 복지 강화를 사회로까지 확장시켰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에 대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가 건의한 내용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법까지 되었다.

“직원이 없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역량과 노력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직원들과 정당하게 나눠야하고, 사회로부터 얻은 그 이윤을 사회와 다시 나눠야 하죠.”

유준식 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로타리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직원과 나누고, 사회에 돌려주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봉사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로타리 사회적 기업은 개인에서 조직으로 봉사의 문화가 전파되고,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총재님이 생각이 확산되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준식 회장은 “봉사는 감추는 게 아닌, 감추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봉사는 결코 감춰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체리쉬 유준식 회장과 그의 직원들은 봉사를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체리쉬 회장 유준식(아가페서울RC)

인류의 건강과 행복,
더 풍요로운 삶,
세상과 통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



시그니처 존

체리쉬 시그니처 존은 집에서 음성인식 가구를 사용하는 콘셉트로 실제 안방처럼 제작됐다. 모션 베드와 커튼, 조명 등의 음성인식 기능을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버' 스피커와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음성인식 기능 외에도 가구와 연동된 리모컨과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어도 체험 가능하다.

시그니처 존은 내 방같이 편안한 곳에 음성인식 가구의 편리함과 재미를 더한 곳으로 고객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앞으로 더 많은 매장에 시그니처 존을 설치할 예정으로 쾌적함을 위해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침대의 정의가 다시 정립된 것이다. 이제 침대는 수면을

위한 도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휴식의 도구'인 것이다. 편안한 수면도 중요하지만 휴식 공간으로 침대를 활용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침대 기술도 다르게 진화 중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움직이는 침대 '모션 베드'다. 모션 베드는 전동장치를 사용해 자동으로 매트 상체나 다리 부분이 아래위로 움직이도록 만든 침대다. 리모컨으로 작동시키는 게 보통이지만,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앱이나 목소리로 작동하기도 한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등받이가 스르륵 올라와 앉은 자세로 책을 읽거나 TV를 볼 수 있다.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무중력 상태 '제로지 포지션'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 바로 '미래에 가까운 가구'인 것이다.



꿈꾸던 공간을 현실로 실현, 혁신적인 공간을 공유

소중하다'는 뜻의 '체리쉬'는 인간과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철학이 리빙 디자인 녹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것이다. 아무 감동이 없는 디자인은 삶의 여유와 만족감을 빼앗고, 교육적, 문화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 특권층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꿈꾸던 공간을 현실로 실현해주는 것,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체리쉬'의 사명인 것이다. 체리쉬의 임직원들은 이러한 사명을 바탕으로 미래에 가장 가까운 가구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